

터보윈 주식회사, 세계 터보블로워, 터보컴프레서 시장을 선도하다.

터보윈은 에어베어링을 탑재한 고압직결형 터보블로워(저소음 고효율의 원심식 터보블로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연구개발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2015년에 설립된 이래로 지난 4년간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47% 성장이라는 업계 최고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다 터보제품라인업(WM/WL/WH/WF Series) 보유 및 세계 최고 에너지 절감 효율(57.5%) 달성 등을 이루어내어,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에는 대통령과 무역협회의 표창장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7백만불탑상을 수상했었습니다.



<터보윈(주) 김민수 대표이사 매일경제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그룹상 수상>

터보윈이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하는 터보블로워와 터보컴프레서는 초고효율로 압축된 공기를 공급하는 산업기계제품으로 수처리부터 식품, 석유화학, 유리, 반도체, 광업, 운송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터보윈의 주요 글로벌파트너사로는 삼성, LG, SK, 현대, GS, 포스코, 한화 등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부터 북미, 유럽, 일본, 중화권의 초대형 글로벌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터보윈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세계 굴지 초대형 파트너사들로부터 강력한 신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터보윈의 기술력인데, 97%의 효율을 자랑하는 피엠모터와 별도의 추가 냉각장치가 필요없는 듀얼쿨링시스템, 제로오일시스템의 에어포일베어링 등의 30여개가 넘는 글로벌 기술 특허들과 50여개가 넘는 글로벌 인증들은 100여년 이상의 기계산업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기계제조사들이 척박한 기계산업토양을 가진 대한민국 소재 회사를 인정할 수 밖에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터보윈의 가장 강력한 강점은 설립 이래로 신제품이 모든 라인업에 걸쳐서 매년 출시되고,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버전 역시 끊임없이 출시가 되어,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파이프라인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기술과 품질 위주의 경영을 해오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터보윈은 2015년에 WL Series(터보블로워)신제품을, 2016년에 1,000마력WL신제품을, 2017년에 WH Series(터보컴프레서)신제품

품을, 2018년에는 WF Series(마이크로터보컴프레서)신제품을, 2019년에 WM Series(마이크로터보블로워)신제품을, 2020년에 WL-i(스마트터보블로워)와 WH-i(스마트터보컴프레서)신제품을 연달아 출시하여 전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WL 터보블로워는 1,200마력, WH 터보컴프레서는 8.0barg까지 출시하여 터보업계 세계 최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보윈 터보블로워, 터보컴프레서, 마이크로 터보블로워, 마이크로 터보컴프레서, 스마트 IoT 시리즈>

특히, 2018년에는 40여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1위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제조하는 회사의 요청으로, 터보윈의 WF제품이 단독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북미, 유럽, 일본 등에 소재한 20여개가 넘는 전세계 수소연료전지패키지 글로벌기업들이 모두 터보윈의 마이크로터보컴프레서를 채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세계최초로 에어포일베어링방식으로 회전수가 220,000 RPM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최소크기의 초경량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혹한, 혹서 등 극악의 환경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고장없이 동작하는 터보윈 제품의 기술력에 글로벌 수소업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하여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터보블로워와 스마트 터보컴프레서를 출시하여, 인공지능(AI)시스템과 결합되어 글로벌 최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산업 등의 초대형 무인스마트팩토리들에 적용되는 파란을 일으켜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김민수 터보윈 대표이사는 “20년 이상의 인고의 세월동안 업계최고의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오로지 터보기술 하나만을 바라보며 글로벌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기술의 연구개발에 몰두하였고, 고객만족을 신성장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덕분에, 이번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에서 영광스러운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만족과 대한민국 터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